

교회소식

- ※ 처음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새 가족실에서 담임 목사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 ※ 2014년 교회표어 : 성령의 은혜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교회(롬12:15)
- ☞ 매일 정오 12시는 온 성도들이 성전 건물 이전을 위해 5분간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 ☞ 이달의 캠페인 -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
- ◎ **단기선교:** 바누아투 선교팀이 마지막 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함께 기도합시다(내일 귀국).
- ◎ **창립주일:** 교회 창립 15주년 감사 예배가 7월 13일(주일) 오후 1시에 있습니다. 교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갑시다.
- ◎ **명찰달기:** 창립주일 감사 예배시에 전 성도들이 명찰을 달기로 정했습니다.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 **간증집회:** 창립감사 간증집회가 있습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시 2014년 7월 11일(금)-12일(토) 오후 7시 장소: 본당 강사: 전기봉 목사 기도: 7월 11일- 박일영 장로, 12일-이광희 장로
- ◎ **간담회:** 교회 창립 15주년을 맞아 교회의 성장과 성숙을 향한 중, 장기 계획 수립을 위해 간담회를 가집니다. 각 공동체는 공동체 예배를 통해 미리 의견 수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2014년 7월 26일(토) 오후 7시-9시 장소: 유아실 참가대상: 각 공동체장과 인도자, 안수 집사, 당회원, 교역자
- ◎ **수련회:**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일시:2014년 7월 15일 오전 9시-저녁 10시30분 장소: 세계 선교교회(187 Red Hills road Taupaki) 주제: 섬김(막10:45)
- ◎ **월례회:** 오늘은 각 선교회 월례회 주일입니다.

교우소식

◎ **이사:** 유현남 집사 30 Beach Road City Scene 3 APT 1012호 전화 309-2332



바누아투: 삼마교회 및 청소년, 포토 빌라 간호 학교



밀알장애우 봉사 Auckland City Mis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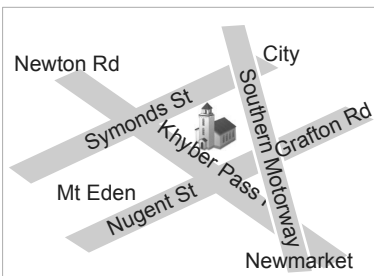


설교 방송:
www.youtube.com /calvaryorgnz
Facebook:
www.facebook.com /calvarykoreanchurch

예배시간 안내

예 배	시 간	장 소
주일1부예배	주일 PM 1:00	본당
청년모임	주일 PM 3:00	Chapel
수요예배	수요일 PM 7:30	본당
새벽기도	금요일 AM 5:50	Chapel
아동부	주일 PM 1:00	Chapel
중고등부	주일 PM 1:00	별관

오시는 길



섬기는 사람들

담임목사 (Senior Pastor)
이태한 (Tae Han Lee)

부목사 (Assistant Pastor)
심창진(Chang Jin Sim)
이성철(Sung Chul Lee)

성령의 은혜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교회

Rejoice with those who rejoice; mourn with those who mourn



2014년 7월 6일 주일

16권 27호

교회창립 1999년 7월 14일

단기선교 후기 1 - 하나님은 일 하신다

제법 굵은 빗줄기가 내리기 시작하는 월요일 새벽, 많은 헤프닝속에서 배운 나온 여러 성도들에게 염려반, 기대반의 실체를 여실히 보여주며 비행기 문이 닫히기 직전 겨우 탑승 할 수 있었습니다. 몇몇 지체들은 이번 단기선교가 기억에 남을 것이라며 안도의 숨을 쉬었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 하실지 기대와 함께 결코 긴장을 늦출 수가 없었습니다.

짧은 비행시간 후 익숙하여 친근하기까지 한 포토빌라에 내렸습니다. 음식물 반입에 따른 의례적인 통과료(세금)를 지불하는 것을 끝으로 마중 나온 톰 장로와 조우하고 선발대 집사님 과 합류하여 간호 학교(김용환 목사)에서 라이스컵으로 점심을 대신한 뒤 바로 대형 마켓으로 이동하여 첫 사역을 펼쳤습니다.

워십과 스캇 드라마에 시장 안의 수 많은 시선들이 집중되었고 끝나자 함성과 함께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들의 함성은 심령의 곤고함이 터져나오는 아우성 이리라, 저들의 박수는 하나님이 아들을 이땅에 보내주심에 대한 감사의 박수소리이어야 하고 단 한 영혼이라도 저 찬양과 드라마를 통해서 구원받기를 소망하며 삼마빌리지로 떠났습니다.

해가 다풀 다풀 서산으로 넘어갈 무렵 삼마에 도착하자 삼마 사람 특유의 수줍음으로 외인 들을 반겼지만 4번의 찾음 속에 애들러 표현하지 않아도 우정과 신뢰가 녹아져 있음이 보였습니다. 세째날, 이번 단기선교의 또 다른 중요한 목적이라 할수 있는 정탐을 위해, 열심히들 사역하는 어여쁜 우리 지체들을 뒤로하고 이광희 장로님, 이정인 집사님과 함께 배를 탔습니다. 이름하여 '쪽배'로 폭이 1.5m, 길이가 5m 안되는 불안하기 그지 없는 배 였습니다. 육지와 멀어지면서 제법 강한 바람, 넘실거리는 파도는 바다를 많이 보고 자란 저였지만 저절로 기도를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30분 남짓 만에 도착한 "필레" 라는 섬에는 200명정도의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중에 60 명정도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곳 교회 집사님의 설명을 들은 후 80여명의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학교를 찾았습니다. 우리의 소개를 들은 교장 선생님은 언제든지 좋다고 하면서 만약 오면 모든 수업을 중단하고서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반겼습니다.

- 안쪽에서 계속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갈보리교회 Calvary Korean Church

70 Khyber Pass Rd, Grafton Auckland www.calvary.org.nz 담임목사: 이태한
Ph: 09-369-5077 Ph: 09-475-6312 mb: 021-968-388 email: LTH-07@calvary.org.nz

주일 예배

오후 1시 인도:이태한목사

전 주
예배로 부름
개 회 송
참회의 기도
※ 찬 송
※ 성 시 교 독
※ 신 앙 고 백
찬 송
대 표 기 도
성 경 봉 독
찬양대 찬양
설 교
찬 송
헌 금 기 도
교 회 소 식
※ 응 답 송
※ 축 도

반주자
마태복음 11:28-30
찬양대
다함께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50. 시편 116편
사도신경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박덕철 장로
데살로니가 전서 5:16-18
나무십자가 찬양대
하나님의 뜻/이태한목사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인도자
인도자
여기에 모인 우리
이태한목사

※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

찬 양
기 도
성 경
설 교
합 심 기 도
광 고
찬 송
주 기 도

수요 찬양단
김태만 집사
요나서 4:1-2
요나의 내면 2/이태한목사
인도자
인도자
538장. 죄짐을 지고서 곤하거든
다같이

청년 모임 오후 3시 인도:심창진목사

Q.T. 나눔과
조별 성경공부
기도 / 김준섭 형제

◎ 7월 교회악기

단기선교: 6월 30일(월) - 7월 7일(월)
간증집회: 7월 11-12 (금, 토요일)
창립주일: 7월 13일(주일)
간담회: 7월 26일(토요일)

◎ 7월 예배봉사가

예 배 안 내: 박병민/이기중
새신자안내: 김수원/최희숙/
박혜숙/경덕현
주 차 안 내: 김광영/민광호
주 방 봉 사: 한상순/김윤숙/장태욱/
양윤주/박제란

◎ 기도순서

이번 주 애찬: 전인우 집사
다음 주일: 김철재 집사
다음 주일 청년부: 연합예배
7월 16일 수요: 남영수 집사
7월 16일 애찬: 박영선 사모
7월 20일 주일: 박병민 장로
7월 20일 청년부: 김승훈 간사

금주의 기도제목

- 1. 창립주일 감사예배와 간증집회가 은혜 중에 준비되고 모든 성도들에게 사모함을 주시고 감사에게 성령충만을 주시도록.
- 2. 창립 15주년을 맞는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성장과 성숙으로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가 되도록.
- 3. 교회중심의 신앙생활로 참된 기쁨과 평안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도록.

7월 새벽기도회 본문

11일: 마가복음 4:30-41 두려움은 '믿음 없음'입니다
18일: 마가복음 7:1-13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하는 위선
25일: 마가복음 9:14-29 믿음의 기도 위에 능력이 임합니다

- 컬럼 앞에서 부터 시작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이왕 정탐을 나선김에 옆 섬에도 갔으면 좋겠다는 하나님의 음성(?) 이 들리는듯 하여 두분과 상의 했습니다. 손에 잡힐듯 뻥히 보이는 섬으로 20분 남짓 거리 있는 "무나"라는 이름의 섬인데 오클랜드의 랑기토토 섬 크기지만 산의 높이는 그리 높지않았 습니다. 우리를 안내한 형제는 마당발인지 지체하지 않고 바로 동네 한가운데 자리잡은 교회의 목사님에게로 우리를 인도 했습니다.

근처 섬들 가운데 유일하게 목사님이 상주하는 150년 된 장로교회로 1870년 뉴질랜드 오타고의 어느 노회에서 파송한 선교사 부부가 50년 동안 사역하다가 또 다시 아들부부가 목사가 되어 부모님의 사역을 이어 받은 영혼 구원의 열정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교회 였습니다. 목사님은 간략하게 교회 소개를 말한 뒤 교회 바로 옆 묘지로 데리고 갔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정든 고국과 부모를 떠나 헌신하다가 당신들이 사랑한 이땅에 묻힌 저들의 영혼에 대한 사랑 앞에 우리는 숙연해지면서 선교사의 삶이 이런것이거나, 이래야 되는구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더욱이 한살배기 갓난 아이의 무덤은 우리를 울리기 에 충분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채 부모의 삶에 그냥 자신의 인생이 결정되어 버린 아이, 그리고 그 아이를 떠나 보내야 했던 부모의 심정은 오죽했을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은 없었을까? 그 터질듯한 아픔을 이겨내었으니 2대에 걸친 삶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을까? 한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취된 묘지는 저들의 헌신과 희생이 물씬 배어 있는 성지 그 자체 였습니다.

목사님은 많이 외로웠는지 처음 보는 이방인들에게 그 흔한 전기도 이메일도 없지만 주소는 있으니 서신을 왕래 하자며 교회의 역사가 담긴 책자와 주소를 떨리는 손으로 적어 주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섬들에게로 우리를 보냈을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어떻게 믿지 않는 섬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 속제가 되고, 사명이 되어 가고, 기도가 되면서 출렁이는 파도에 맥없이 흔들리는 쪽배를 탄 두려움을 잊을 수 있는 기쁨 가득한 정탐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린 하루였습니다. - 이태한 목사